

# 제주 10명 중 3명 '변이 바이러스' 감염

### 5~6월 집단감염 확진자 등 81명 바이러스 검출 대부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도 "전파력 강해"

제주지역에서 '알파 변이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5~6월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던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40여명을 포함해 도내 확진자 중 81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확진자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 28건을 추가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변이바이러스 검출자는 총 8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추가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28명에게선 모두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81명 가운데 >79명은 알파(영국발) 변이 >1명은 베타(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1명은 델타(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됐다. 해외 유입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9명은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들 확진자 중 38명은 개별 사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41명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며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던 5개의 제주지역 집단감염 관련자로 조사됐다.

또한 직접적으로 변이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 변이 바이러스 확

진자로부터 감염이 되거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를 감염 시키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감염자는 총 115명이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자 81명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감염자 115명을 다한 결과 제주지역에서 주요 변이에 추정된 감염자수는 무려 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시작한 올해 2월 1일부터 최근 감염자를 확인한 6월 14일까지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676명 가운데 29%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인 셈이다.

이중 알파 변이가 193명으로 98.5%의 비율을 보였고 베타 변이 0.5%(1명), 델타 변이가 1.0%(2명)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장은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 수가 다소 연착륙 한 자릿수를 보이며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근 다수의 확진자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선 15일 오후 5시까지 8명(1199~1206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206명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선 지난해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 15개월만인 올해 5월 27일 누적 확진자가 1000명대에 진입했다. 이어 지난 4일 110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1일 만인 15일 1200명대를 넘어섰다. 김대희기자

# 초등학교 '1수업 2교사제' 본격 시행

## 도교육청 기간제 교원 24명 국어·수학 등 투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한시적 사업인 '1수업 2교사제'가 본격 운영되고 있다.

'1수업 2교사제'는 정규 교육과정 중 국어, 수학 등 일부 교과 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함께 학습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학력 저하 예방이 주된 취지다.

제주지역은 초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24개교에 24명의 기간제 교원이 투입된다. 최근 추경을 통해 인건비도 확보됐다. 기

간제 교원 우선 배치 기준은 과밀학급(저학년), 원도심 학교, 기초학력·정서지원이 필요한 학교 등이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협력교사가 배치되는 24개교 가운데 현재 15개교만 채용이 완료돼 운영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기 중간에 채용절차가 진행되면서 일부 학교의 경우 인력풀 한계로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시간제 보육시설 15개소로 확대 운영

## 제주시 "자부담 1000원으로 월 80시간 이용"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일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 운영돼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보육시설에서는 본인부담금 1000원으로 월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이나 취업준비, 가족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이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

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해당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월 80시간은 정부지원금 3000원에 본인부담금 1000원으로, 월 80시간 초과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 4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러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전화 070-4009-6566)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윤형기자

# 대한항공 '2시간 비행' 드론 제주소방본부 제공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한 최대 2시간 비행 가능한 하이브리드 드론(사진) 2대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 제공은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소방전술용 드론사업 계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드론은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배터리 타입 드론의 운행시간이 30분인데 비해 하이브리드 드론은 최대 2시간까지 운행 가능하다.

또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을 2배 이상 향상시켜 최대 비행고도 500m, 속도는 72km/h에 이르고, 영하 20℃-영상 45℃의 온도에서도 정상 운영할 수



있다. 초속 14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풍성을 높여 바람이 강한 제주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공급하는 하이브리드 드론은 날개를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딩암 방식이며, 연료탱크 또한 효율적으로 개선해 기존 모델보다 비행 준비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편의성도 향상됐다. 대한항공은 부산시와 해·공군에 하이브리드 드론을 공급해 활용성을 이미 검증 받은 바 있다. 문미숙기자

# 변영로서 승용차량 화재

14일 오전 8시14분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변영로에서 승용차량이 도랑으로 전도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전체가 불타 소방서 추산 49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을 넘어 전도되며 엔진룸의 전기스파크로 불이 발생해 차량 전체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비 내리는 협재해수욕장 비가 내린 15일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제주 청정 바다를 감상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뛰고 또 뛰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 제주 5월 ㎡당 751만원... 1년 전보다 66% 상승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주택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뛰는 집값을 반기는 한편에선 내집 마련을 위해 허리를 졸라매는 서민 실수요층의 기대를 꺾고,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며 주거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5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에 따르면 제주지역 ㎡당 분양가는 7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451만원)보다 66.2% 오르고, 5월 전국평균 분양가(413만원)보다 81.7% 높은 수준이다. 17개 시·도 중에선 서울(866만원) 다음으로 비쌌다. 제주 다음으로 는 대구(470만원), 인천(460만원), 울산(442만원), 부산(441만원), 경기(423만원) 등으로 제주와의 가격 차이가 상당해 제주의 분양가격 급등세를 짐작케 하고 있다. 5월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의 1년 전 대비 상승률은 12.2%(368만원→413만원)다.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작년 11월 436만원, 올 1월 519만원, 3월 719만원으로 같은기간 전국평균 분양가(작년 11월 386만원, 올 1월 393만원, 3월 410만원)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같은 가격 상승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을 세검과 대출 규제를 받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자 지난해 12월중부터 전국 각지의 투자 수요가 제주로 몰린 게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도 올 3~4월 제주시 연동에서 분양한 2곳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각각 전용 83㎡,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각각 6억7910만원, 9억4830만원으로 도내 역대 최고가를 잇달아 경신한 게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내 한 무주택자 시민은 "지금의 제주 집값은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고, 작은 집에서 살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소박한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 봐야겠다"고 하소연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지금 전화로 상담하십시오!

###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솔라에너지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742-5775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